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신규가정과교사의 경험 탐색

전미경[†]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Exploring the Experiences of Novice Home Economics Teachers Using Photovoice

Jun, Mikyung[†]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obtain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experiences of novice Home Economics teachers during their first year and to extract meaning from the experiences. The Photovoice was used as a research methodology. Participants in the study included three novice Home Economics teachers who passed the 2022 secondary school teacher recruitment examination and began working at middle school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rom March 2022. Data were collected from February 2022 to January 2023, involving one written interview, nine monthly Photovoice projects, and two Focus Group Interviews. Thematic analysis was utilized for data analysis. The narratives of novice Home Economics teachers were divided into the narratives as 'Home Economics teacher' and as 'Novice teacher'. As being Home Economics teachers, participants constructed their narratives around three themes: 'Home Economics is a practical disciplin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agents of change', and 'Home Economics is undervalued in the school.' Furthermore, the sub themes of the 'novice teachers' narrative included 'Now it's the real beginning', 'Teaching is a wonderful profession', and 'I will become a good teacher.'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e in-depth exploration of the lived experiences of novice Home Economics teachers during their first year and broadening the use of Photovoice as a research and teaching strategy.

Key words: 가정과교사(Home Economics teacher), 내러티브(narrative), 신규교사(novice teacher),
중등교사(secondary school teacher), 포토보이스(photovoice)

[†] 교신저자: Jun, Mikyung, Dongguk University,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30, Pildong-ro 1-gil, Jung-gu, Seoul, 04620, Republic of Korea
Tel: +82-2-2260-3889, E-mail: mkjun@dongguk.edu

I. 서론

우리나라 중등학교 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춘 후 교육부 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이다. 국가가 교사의 자격 기준을 제도적으로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공교육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학생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학교에서 교사는 앎을 전달하는 지식 전달자, 학생의 학습지도·피드백·평가와 관련한 학생 지도자, 담임 학급의 주된 행정가인 학급 운영자, 사회변화에 따른 교사의 역할 변화를 꾸준히 연구하는 변화 지향자, 학생의 진로 및 교우관계 등에 관해 이야기하는 안내자 역할을 수행한다(Kang & Kim, 2019). 이러한 교사의 삶은 보람되지만, 한편으로는 고달픈 삶의 연속이다. 학교 교사의 직업적 삶 속에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전인적 인간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헌신, 그리고 직업인으로 겪게 되는 남들이 모르는 고통과 애환이 서려 있다(Cho, 2018).

중등교사들의 하루 일과는 매우 바쁘지만, 그 내용은 다분히 반복적이다. 교사들이 늘 바쁘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힘들고 때로는 지친 생활을 한다(Oh, 2001). 최근 교사의 삶의 질은 더욱 악화하여 교사 직무만족도는 조사 이래 최악을 기록하였다(Nam, 2023). 교사의 삶은 학생의 삶과 학교교육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에 이에 관한 연구는 교육계의 꾸준한 관심사였고, 최근의 추락하는 교권과 낮은 교직 만족도 상황과 맞물려 학계의 주목을 더욱 많이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Cho(2018; 2023)는 ‘가슴앓이’, ‘넋두리’라는 주제로 중등 체육교사 삶을 탐색하였다.

모든 교사에게는 교직 입문 시기, 즉 신규교사¹⁾ 기간이 있다. 신규교사는 교사로서 수행해야 하는 전반적인 직무에 적응하는 것과 더불어 수업, 평가, 생활지도 등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형성해야 하는 과업을 갖는다(Jung et al., 2023). 우리나라는 교직 이수 과정에서 교육 현장실습을 거치는 구조라,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교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간주하여 별도의 실무 인턴 과정 없이 학교 현장에 투입되어 교직 경력

이 많은 사람과 동등한 일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 신규교사라 할지라도 학교에서 근무하는 첫날부터 경력 많은 교사와 거의 비슷하게 자신이 담당한 학생들의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진다(Chung et al., 2014). 신규교사 대부분은 자신의 희망과 무관한 업무 배정, 업무능력에 대한 선배 교사의 과도한 기대, 공식 업무 이외의 추가 업무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운데(Jung & Yang, 2016)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교사생활에 적응한다. 신규 교사의 실제 경험을 다룬 연구에 따르면(Lee et al., 2022), 신규 교사는 낯설고 두려움, 기대와 좌절, 준비 부족과 대안의 부재, 학교문화에 대한 원망과 좌절 등을 경험하지만 좌절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며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한다.

교사가 초임 시절을 어떻게 보내는가는 이후 교사로서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Kim et al., 2006)는 사실에 주목할 때 신규교사 연구의 의미는 상당하다. 이 연구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이후 임용시험으로 한다.) 합격 후 첫 발령을 받은 신규가정교사의 일 년간의 학교생활을 포토보이스 방법론으로 탐색하였다. 사진을 뜻하는 ‘포토(photo)’와 목소리를 뜻하는 ‘보이스(voice)’가 결합한 포토보이스(photovoice)는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사진에 담은 연구방법이다. 포토보이스 연구를 출발시킨 Wang과 Burris(1994)는 중국 시골 여성을 연구참여자로 하여 ‘건강’에 관한 개인과 집단의 지식 증진을 통해 사회변화를 이끌고자 했다. 포토보이스는 연구참여자의 역량 강화가 가능하며 특히 소수·취약 집단의 역량 강화 관점에서 의의가 있다(Yoo, 2015). 또 포토보이스는 특정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적합한 연구방법인데, 연구참여자의 경험과 인식을 담은 사진 자료를 통해 텍스트가 가지는 제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가 사진을 찍고 그것에 대해 집단이 이야기하는 포토보이스 자료에는 3중의 내러티브가 담겨있다. 첫째, 사진은 사진을 찍은 사람의 해석을 반영한, 이미지로 표현된 의미나 해석이다. 둘째, 집단 활동에서 사진은 사진에 대한 설명을 통해 더욱 명시적인 언어로 의미를 드러낸다. 셋째, 최종적인 사진 설명은 토론에서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구성한 이야기라는 점이다(Lee, 2019). 이 연구는 사진, 사진의 해석, 사진 공유 과정 속 해석의 3중 내러티브를 가진 포토보이스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정과교사의 1년을 깊이 있게 탐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행연구에서는 교직에 처음 들어선 교사를 ‘신규교사’, ‘신임교사’, ‘초임교사’ 등으로 부르며, 그 기간도 1년, 3년, 5년으로 다르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해당 교육청의 발령을 받아 교직에 들어선 첫째의 교사를 ‘신규교사’라 정의한다.

신규가정교사는 첫 1년 동안의 교사생활에서 무엇을 경험하며 이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II. 선행연구 고찰

1. 훌륭한 교사와 가정교사의 삶

사람은 가르침을 통해 삶의 의미를 이해할 지식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질을 온전히 배운다. 따라서 가르치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의미 있는 영향을 끼쳐야만 한다(Banner & Cannon, 2022). 그렇다면 어떤 교사가 훌륭한 교사일까? 훌륭한 교사상에서 훌륭함의 기준에는 교사의 전문성, 교사의 도덕적·인격적 자질, 교사의 자기돌봄 및 자기존중의 가치가 있다(Yoon, 2016). 교사의 전문성은 교사가 수행하는 교과지도와 생활지도에서 발휘된다. 또 교직은 직업 특성상 학생과의 전면적 관계를 전제하기 때문에, 교사가 교사이기 위해서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교사의 도덕적 품성과 인격이 필요하다(Lee, 2014). 나아가 훌륭한 교사는 자기를 잘 아는, 다시 말해 자기의 영혼을 돌보는 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학생 영혼의 성숙까지 돕는 자이다(Han, 2014; Yoon, 2016).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중등교사는 학업성취를 중시하는 중등교육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전문가여야 한다는 요구를 받는다. 청소년 학생들은 교사들이 지적으로 뛰어나기를 원하며 교사로부터 정서적 유대감과 관심을 기대한다. 또 심리·사회적으로 자신들의 삶에 함께하고 자신들의 세계를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Tschong, 2003). 따라서 훌륭한 가정교사는 이와 같은 훌륭한 교사의 자질에 더해 가정교과의 특성과 성격을 가정 수업에서 구현할 수 있는 교사이다. Chae 외(2019)는 가정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가정교사에게는 이론과 실천을 연결하는 지식, 교육과정·교과서·수업 내용을 재구성하는 능력, 사회문제를 파악·통찰해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능력, 자기개발 노력 등이 요구된다고 했다.

한편, 지금까지 가정교사의 삶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으나 의미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Kim과 Chae(2018)

는 가정교사 문화의 특성을 조사하여, 가정교사는 가정교육의 교과철학을 정립한 후 가정교과가 청소년 개인, 가정, 사회를 이롭게 하는 실천비판교과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Ahn과 Park(2020)은 대부분의 가정교과교사가 여성인 현실에 주목하여, ‘우연’, ‘직면’, ‘기대’라는 핵심어로 남자 가정교과교사의 삶을 연구하였고, Jun(2022)은 가정교육과 남학생이 예비가정교과교사로서 가정교육과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내러티브를 탐색하였다. 또 가정 수업에서의 교사 경험에 주목한 Han과 Chae(2016)는 가정교과교사에게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의 실행은 단순한 수업 목표 달성을 위한 교수·학습 전략의 선택이 아닌, 교육적 신념과 일치하는 수업 관점에 대한 적극적인 선택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와 마찬가지로 신규가정교과교사에 주목하여 이들의 교사 사회화 과정을 추적한 Yu(2010)는, 교사양성의 교육현장은 신규가정교과교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재연구 수업이나 가정교과교사로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가정학 철학수업과 같은 교과교육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교육학과 포토보이스

학교에서 포토보이스는 학습자의 비판적 성찰을 위한 유용한 교육전략이다. 학생들은 익숙한 ‘사진 촬영’을 수행한 후 이에 대한 서사를 언어화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끌어낼 뿐 아니라, 각자가 찍은 사진을 서로 토론함으로써 언어적 상호작용이 적극적으로 일어나 다른 사람의 관점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포토보이스는 학생들이 그들의 공동체에 직접 참가하는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관련 쟁점과 관련된 사진을 직접 찍고, 다시 교실로 돌아와 그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자신의 목소리로 들려줌으로써 능동적 비주얼 리터러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Cho & Kim, 2020).

포토보이스는 또한 연구참여자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유용한 연구전략이다. 연구방법으로서 ‘포토보이스’가 국내 학계에 본격적으로 적용된 것은 2010년대이며, 이후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어 질적·양적으로 확대하였다. 최근에는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연구가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사진 촬영에 익숙한 청소년을 연구참여자로 한 포토보이스

연구가 활발하다. 예를 들면 Kim(2024)은 청소년기 형제자매 관계를, Hong 외(2023)는 지속 가능한 식생활 인식을, Yang (2016)은 학교폭력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의미를 연구하였다.

포토보이스 연구가 쌓이면서 선행연구의 동향을 탐색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국내 사회복지 분야의 포토보이스 연구 31편을 분석한 Her와 Chung(2019)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보다 정교한 연구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지적장애인이 참여한 24편의 국내외 포토보이스 연구를 분석한 Choi(2016)는 지적장애인의 참여자 주도성을 촉진할 수 있는 보완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토보이스 연구방법론은 특수교육과 유아교육 분야에서 활발하다. Kim과 Heo(2019a)는 2000년 이후 국내외에서 발표한 42편의 특수교육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참여 실행연구로서의 포토보이스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유아교육의 경우 예비 유아교사를 연구참여자로 하여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의 의미(Ko, 2023), 유아교사 교사생활에 대한 인식(Cho, 2022) 등의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유아교육 분야와 달리 초·중등교육에서 포토보이스 연구는 양적으로 많지 않으나 최근 의미 있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Jin과 Oh(2022)는 코로나 19를 경험한 초등학생의 감정을 포토보이스로 접근하여 이들의 공포, 우울, 분노, 슬픔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또 지리과의 교수 및 학습 도구로서 포토보이스의 가능성을 탐색한 Cho와 Kim(2020)은,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지리 수업이 능동적 시민성의 촉진, 학생의 '실제적 학습'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Oh(2023)는 국내 교육학 분야의 21편 포토보이스 연구동향을 조사해 포토보이스가 연구참여자들의 비판적 의식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용한 교육적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

한편, 이 연구와 마찬가지로 포토보이스를 통해 교사들의 삶을 추적하는 연구가 있다. Kim과 Heo(2019b)는 특수교사의 일상과 성장 경험을, Kim(2020)은 체육교사가 인지하는 체육 수업의 사회생태학적 문제점을 탐색하였다. 특히 Choi(2023)는 포토보이스를 활용하여 초등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탐색하여 이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이상의 선행연구가 말하고 있듯이 포토보이스는 국내외에서 유용한 연구전략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고, 향후 보다 질적·양적으로 향상된 연구물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포토보이

스는 특정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적합한 연구 방법으로, 연구참여자의 경험과 인식을 담은 사진 자료를 통해 텍스트가 가지는 재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참여적 행동 연구를 지향하는 포토보이스는 연구참여자의 성장을 도모하는 연구전략이다. 이 연구는 신규가정교사 1년을 포토보이스로 추적함으로써 이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 모집을 위해 먼저 2022년 2월 서울 소재 D대학 신규가정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연구 취지를 안내하여 참여 의사가 있는 신규교사를 찾았다. 이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동질적 특성과 이질적 특성을 기준으로 3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다시 말해 연구자의 동질성을 갖추어 연구의 범위를 제한시키고자 했으며, 연구참여자의 이질성을 통해 신규가정교사의 다양한 경험을 탐색하고자 했다. 가정교사의 동질적 특성을 마련하고자 연구참여자를 여교사로 제한했다. 이는 가정교사 대부분이 여교사이며, 가정교사의 젠더적 특성은 이미 선행연구(Ahn & Park, 2020)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또 연구참여자를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출신으로 제한해 경험의 출발선을 맞추고자 했다. 반면 임용시험 준비기간, 졸업 여부, 졸업 후 이력 등과 같은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을 다르게 함으로써 경험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Table 1 참조). 이런 기준으로 선정한 연구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 A교사는 신규교사가 되기까지 7년의 기간제 교사, 3년의 가족 관련 ○○센터 선임연구원, 대학 강사 등의 이력을 갖고 있다. A교사는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서 선임연구원 일을 수행하였으나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업무 특성에 대한 거부감과, 개인을 직접 만나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는 '의미 있는 영향력' 대한 갈망으로 연구직을 사직하고 기간제 교사생활을 시작했다. A교사의 기간제 교사생활은 무

난하였으나,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보는 상황’의 불편함, 임용시험 실패감에서의 해방, 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수업을 준비하며 학생들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에 임용시험을 준비해 합격하였다. A교사는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갖춘 교사가 되기를 원하며, ‘일상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근접한 과목’이 가정교과라는 신념이 강하다.

연구참여자 B교사는 신규교사가 되기 전까지 1.5년 간 기간제 교사생활을 했고, 학생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회복탄력성에 관심이 크다. B교사는 자신의 교직관을 ‘트랩펄란’에 비유하면서, 이 놀이기구를 ‘언제든 넘어질 수 있음을 허락하는 기구’라고 설명한다. 아스팔트 위에서 넘어지면 상처가 생기지만 트랩펄란 위에서는 넘어짐이 재미와 배움을 줄 뿐 아니라 다음 도약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이다. 학생의 행복과 즐거운 학교생활을 중시하는 B교사는 트랩펄란을 제대로 즐기려면 함께 뛰는 친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B교사는 자신과 학생들이 함께 ‘리듬에 맞춰 뛰어오르는 재미를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한다.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 반동을 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연구참여자 C교사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기간제 교사생활의 경험이 없다. C교사는 전공 수업뿐 아니라 학과 안팎의 다양한 비교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대학생활을 하였다. 저학년 때부터 가정교과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임용시험 출제경향에 관심을 두면서

전공 수업에 임하였고 그 결과 졸업과 동시에 교직에 나갈 수 있었다. C교사에게 좋은 교사란 ‘정확한 교과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지식 전달자 역할 뿐 아니라 학생 삶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력자’이다. C교사는 학생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교사’가 되기를 원한다.

2. 연구절차

포토보이스 연구의 실행 과정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다 (Shin, 2022). 이 연구는 포토보이스 선행연구 절차(Choi, 2023; Latz, 2018; Overmars-Marx et al., 2017)를 참조하여 4단계의 과정을 밟았다(Figure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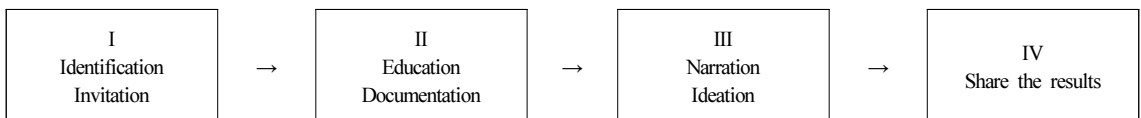
1단계는 파악과 모집 단계이다. 파악 단계는 포토보이스 활용이 필요한 주제, 연구목적, 연구참여자를 구체화하는 단계로, 이 연구는 2021년 1월 모 학회의 포토보이스 연구방법론 워크숍 참여하면서 연구설계를 시작하였고, 관련 논문을 고찰하며 탐구의 논점을 파악하였다. 모집 단계에서는 약 1년간 성실하게 연구에 임할 수 있는 참여자를 2022년에 2월에 공개 모집한 후 의도적 표본 추출 방법으로 최종 3명을 선정하였다.

2단계는 교육과 기록 단계이다. 포토보이스는 참여자 교육 기반 연구로 교육단계에서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포토보이스 진행 방법과 참여에 수반하는 내용을 알린다(Choi, 2023). 이

Table 1.
Research Participants

ID	지역	성별	연령	학력	경력
A교사	서울	여	40세	석사	기간제 교사, 가족 관련 센터 선임연구원
B교사	경기	여	26세	학사	기간제 교사
C교사	경기	여	22세	학사	-

Figure 1.
Research Procedures



연구는 2022년 2월 비대면 오리엔테이션에서 연구참여자에게 사진 촬영 및 사진 공개에 대한 동의서 안내, 연구진행 방법과 절차,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였다.

기록은 연구참여자가 연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단계이다. 연구참여자는 먼저 ‘신규가정교과사 되기’를 주제로 A4 3~5쪽 분량의 서면 인터뷰를 2022년 2월에 제출하였다. 서면 인터뷰는 ‘좋은 교사란?’, ‘가정교과란?’, ‘신규가정교과사가 되었을 때 기대하는 것과 걱정되는 것’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것이었다. 포토보이스는 2022년 3월~12월까지 총 9회(월 1회, 7·8월은 1회 진행)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매달 해당 월의 주제에 맞는 사진을 촬영한 후 그중에서 3장을 골라 사진의 제목과 사진에 대한 현장 노트(촬영 이유, 사진에 담긴 의미, 사진에 관한 생각과 감정 등)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다음 달 포토보이스 주제는 SNS를 통해 함께 의논하며 선정하였다. 포토보이스는 개인별로 27장을 제출하여 총 81개의 포토보이스 자료가 수집되었다.

3단계는 서술과 관념화 단계이다. 서술 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가 촬영한 사진을 서로 토의·해석하면서 의미를 부여한다. 연구참여자는 매월 SNS에서 해당 월의 주제를 공유하였고, 여름방학(2022년 7월)과 겨울방학(2023년 1월)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약 2시간)를 통해 사진의 의미를 구체화하며 맥락을 부여하였다. 여름방학의 FGI에서는 1학기 제출한 사진을 중심으로 신규교사로서의 경험을 공유하였고, 좋은 것, 힘든 것, 교사되기 이전 생각과 다른 것·달라진 것 등을 이야기했고 신규교사로서의 고충도 공유했다. 또 2학기 포토보이스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도 논의했다. 겨울방학의 FGI는 여름방학과 비슷하지만, 신규가정교과사 1년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관념화는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이 연구는 Braun과 Clarke(2006)의 주제 분석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주제 분석법은 질적연구이며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연구여서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두꺼운 설명’이 가능하다. 또 예상하지 못한 단서 제공, 심리적·사회적 해석이 가능한 데이터 생성과 이를 통한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유용하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서면 인터뷰, 포토보이스, FGI 자료를 주제 분석법의 6단계(데이터에 익숙해지기, 초기 코드 생성하기, 테마 검색하기, 테마 검토하기, 테마

정의하기 및 명명하기, 보고서 생성하기)로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자는 자료를 반복해 읽으면서 초기 아이디어를 기록하였다. 데이터가 익숙해진 후 데이터 특징을 식별하면서 의미 있는 내용을 추출하였고, 이를 잠재적 주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의미 있는 다른 내용과 결합했다. 이후 주요 주제의 선정을 위해 내부 동질성과 외부 이질성의 기준으로 테마를 범주화한 후 테마의 명확한 정의와 이름을 명명하는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에는 보고서 생성 작업을 진행하였다. 자료분석 과정 중 연구참여자가 제출한 사진이나 인터뷰 내용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전화와 문자 등으로 소통하면서 연구자료를 보완하였다.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2차래, 즉 테마 정의 및 명명 단계와 보고서 생성 단계 후에 분석 내용을 연구참여자와 공유하면서 배제와 보완의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질적연구 경험이 풍부한 교육학과 아동학 전공 교수 2인에게 내용 타당성을 거치며 수정·보완하였다.

4단계는 연구결과의 후속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Latz(2018)의 발표 및 확인(확증)에 해당한다. 발표는 연구결과를 관련 구성원과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확증은 발표의 참석자들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사진에 대한 참여자의 의미와 해석을 확인하고 의도대로 연구를 수행·전달하였는지 확인한다는 점에서 확증은 포토보이스 전 과정에서 일어난다(Choi, 2023). 이 연구는 관련 학술대회에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또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최종 결과물이 자신들의 경험 내용과 의미를 적절히 해석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3.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연구 시작 전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시행한 온라인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였고, 교육 내용에 준해 수집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 비밀보장, 익명으로 진행 등을 연구참여자에게 안내하였다. 제출한 사진은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도 안내하였다. 사진 촬영 시 사진에 개인정보를 담아서 안 된다는 점과 필요한 경우 삭제 또는 모자이크 처리,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유의 사항 등의 연구참여자 윤리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중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점과 연구참여자에 대한 보상 등, 연구참여자 권리를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았다.

IV.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는 2월 서면 인터뷰, 3~12월 포토보이스 활동, 여름·겨울방학의 FGI에 참여하였고, 연구결과는 이를 분석한 것이다. 포토보이스 활동에서 연구참여자는 총 81개의 사진을 제출했다. 월별 사진 주제를 살펴보면, 3·4월 자유주제, 5월 좋은 교사, 6월 가정교과, 7~8월 여름방학, 9월 학부모, 10월 동료교사, 11월 학교, 12월 마무리였다. 연구참여자가 선정한 주제는 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연동하였다. 학기가 시작하는 3월과 4월의 포토보이스는 자유주제로 진행했으며, 환영, 가정교과, 개학, 기술·가정 선생님, 초심 등의 내용이 있었다.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의 주제는 ‘좋은 교사’였으며, 수업,

성장, 좋은 교사란?, 용기, 도전 등이, 6월 ‘가정교과’에는 수행평가, 역할극, 배움, 경험 등의 내용이 있었다. 7~8월의 포토보이스 주제는 ‘여름방학’이며 수업 준비, 잠시 정비 시간, 발전의 기회, 롱런(long run) 등으로 구성되었다. 9월의 포토보이스 주제는 ‘학부모’였고 상담, 연락, 청렴, 문자, 영향, 공개수업, 자기방어가, 10월 ‘동료교사’에는 모임, 경계선, 인기, 활력, 오고 가는 배움, 자극제가, 11월 ‘학교’에는 격려, 하소연, 행정, 교감·교장선생님 등의 내용이 있었다. 마지막 12월 포토보이스는 ‘마무리’라는 주제로 생활기록부, 종파티, 단체 사진, 감사, 예산 털어내기, 아이들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상의 서면 인터뷰, 포토보이스, FGI를 Braun과 Clarke(2006)의 주제 분석법으로 분석한 결과, 소주제는 6개였고 대주제는 2개, 즉 ‘가정과교사 이야기’와 ‘신규교사 이야기’였다(Table 2 참조).

1. 연구참여자의 ‘가정과교사 이야기’

연구참여자의 ‘가정과교사 이야기’는 ‘가정교과는 실천교과이다’, ‘가정과교사는 변화를 만드는 교사이다’, ‘가정교과는


Table 2.
Consensus Items

대주제	소주제	하위주제	의미단위
가 정 교 사 이 야 기	가정교과는 실천교과이다.	가정교과는 일상을 다루는 교과이다.	일상이 모두 수업자료, 배움을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 실생활과 밀접한 교과, 이는 만큼 보이는 교과
		가정교과는 학생의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교과이다.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가정교과, 슬기로운 해결을 돕는 ‘힌트’ 같은 과목, 삶의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
	가정교과는 변화를 만드는 교사이다.	가정교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교과이다.	사회변화에 따른 수업 내용,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 아이들의 삶의 변화에 발맞추기, 변화가 많은 중1 따라가기
		가정교과는 학생의 변화를 이끈다.	학생은 밀그립만 가득한 컬러링 북, 학생 자신의 경험·생각·의지로 스스로를 이해, 수업에서 다채로운 경험, 다양한 색깔의 아이들표 교과서
	가정교과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다.	가정교과는 학교의 변화를 이끈다.	학교문화와 학교행정이 만든 편견에 맞서기, 편견 바꾸기, 학교의 영향력, 어른들의 인식개선이 필요
		가정교과는 기술교사인가, 기술교사인가, 기가교사인가.	일상이 수업 내용인 것처럼, 나의 언행을 되짚어 보고 반성, 수업을 되돌아보는 시간의 중요함, 책임감, 보람, 감사
	가정교과는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가정교과는 가정교사인가, 기술교사인가, 기가교사인가.	기술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 기술 영역까지 도달아 수업, 교과의 정체성, 감이 안 잡히는, 정체성 위협
		가정교과는 비주류교과이다.	비주류, 부족한 시수, 입시 위주, 회의감, 현실 자각, 위협, 억울하고 창피하고 당황스럽고, 필요한 교과, 자유로운 수업 재량권
		가정교과는 ‘가정교과’라는 편견에 갇혀있다.	잘못된 시선, 설움, 발근, 참기 어려움, 가정교과사다움이란?, 학생의 편견, 가정교과사들만의 연대감, 교과 전문성 강화

Table 2.
Continued

대주제	소주제	하위주제	의미단위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임용시험과 기간제 교사생활을 끝냈다.	기대, 처음, 여유, 자랑스러운 나, 저녁이 있는 삶, 기간제 교사 끝, 외운 지식을 수업에 적용, 방학
		내 학생을 만난다.	첫 제자, 첫 학교 내 아이들, 특별하게, 오랫동안 기억, 사랑을 듬뿍, 기억나는 나의 선생님
신규교사	교직은 멋진 직업이다.	학생이 교직의 중심이다.	아이들 얼굴 하나하나를 찬찬히 보며, 자랑스러운, 장난꾸러기들, 성장하는, 희망, 기특하다, 참을 인 서른 번
		내 직업은 교사이다.	학생, 학부모, 조화-종래, 개학-방학-개학-방학, 월급날, 시험출제, 예산 털기, 직무연수, 공개수업, 학교장의 리더십
		동료교사는 나의 힘이다.	옆, 모델링, 동료장학, 참관수업, 성장자극제, 배움, 의지, 친구, 신뢰, 자료 공유, 좋은 관계, 비슷한 고충·생각·업무, 사생활, 직장생활 활력소, 응원, 격려
이야기	좋은 교사가 되겠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교사 영향력에 대한 경외심, 공감 능력을 갖춘 교사, 반응하는 교사, 교과전문가, 모범, 지지, 격려, 칭찬
		나는 담임이다.	우리 반 아이들, 내 새끼들, 학생 마음 읽기, 학급 운영자, 업무, 사건과 사고, 생활기록부, 키득, 학부모, 학생 눈높이
		올바른 경계선 만들기	방과 후, 방학, 학교 밖, 잦은 연락, 사생활, 어디까지?, 좋은 교사란?, 문자, 인스타 아이디, 학부모와의 팀워크
		난관을 넘어	스트레스, 전화, 상담, 민원, 자기방어, 겁먹음, 피곤, 이직 고민, 덧없음, 울음, 당황, 분노, 포기, 다친 마음, ‘을’인 현실, 책임, 사명, 약, 휴식, 야근, 성찰, 그래도 ‘학생’

Figure 2.
Turning Learning into Practice



우리 가정교과는 ‘실천교과’다! 나의 수업 슬로건이기도 한 ‘실천하는 가정 시간’. 내가 가정교과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이유이다. ... 가정과교사는 ‘실천교과’라는 가정교과의 정체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아이들의 삶에 실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C교사, 4월)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로 구성되었다. 먼저 ‘가정교과는 실천교과이다’라는 가정과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연구참여자는 가정교과의 핵심적 정체성을 ‘실천교과’로 규정한다(Figure 2 참조). ‘가정교과는 실천교과이다’라는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는, 가정교과는 일상을 다루는 교과, 학생의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교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학습요소가 변화하는 교과라는 세 가지 흐름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신규교사는 가정교

과의 교과 소재는 일상이라고 말한다.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의 일상 자체를 다루는 교과로, ‘아는 게 힘’이 되는 교과라고 한다. 따라서 교사 자신은 일상에서 접하는 잘못된 정보가 눈에 거슬러 본의 아니게 피곤해진다고 말한다.

(가정교사인) 나는 알면 알수록 우리 생활에 할 말이 많아져서 푹푹해지는 기분으로 신이 날 때가 많지만 종종 피곤한 기분도 든다. ... 휴소평에서 웃이 나오

면 라인과 보정을 떠올리고, 금쪽이에서는 부모교육이 떠오르고, 치킨 CF를 보며 트랜스 지방이 떠오르고 ... 쉬려고 틈 TV가 정말 괴로웠다. (B교사, 서면 인터뷰)

‘가정, 왜 배울까’(3월)에서 C교사는 “가정교사의 삶은 매 순간 책임감과 사명감이 넘쳐흘러야 하는 삶”이라 강변하며 학생의 변화를 이끈 가정수업의 힘을 체감한다고 말한다. 한편 신규교사는 가정교과가 실천교과일 수 있는 것은 학습요소가 시대의 요구에 따라 꾸준히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A교사는, 가정수업이 다루는 주제의 확장성은 변화하는 외부 상황과 환경을 적극 반영하여야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만 학생들이 흥미로워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4월, 프로콘 토론 수업).

‘가정교과사 이야기’ 두 번째 주제는 ‘가정교과사는 변화를 만드는 교사이다’이다. 즉 가정교과사는 학생과 학교, 더 나아가 교사 자신의 변화를 이끈다는 것이다(Figure 3 참조).

신규교사가 가정교과사로서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가정수업을 통한 학생 변화이며, 이는 가정교과사 자신을 성장시켰다. 신규교사는 학생의 긍정적인 변화에 효능감을 가졌고 성장하는 자기 모습에 자긍심과 만족감을 느꼈다.

한 주, 한 주 꾸준히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이 참 기특하다. ‘좋은 교사’란 ... 학생들의 삶 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C교사, 5월, 5반 챗린지)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나 개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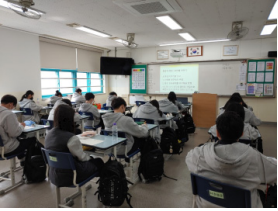
감정을 내려놓고 교사의 감정으로 학생을 대하는 법을 조금은 깨달은 교사가 된 것 같다. (B교사, 12월, 기원과 기대)

B교사는 전공과 관련한 영역에서 학교의 변화를 이끌었다. B교사는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 자기소개서 양식이 부와 모가 모두 있는 가족을 전제할 뿐 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다루고 있음을 지적해, ‘막내 신분’임에도 양식의 변경을 이끌었다. B교사는 “여기는 정상 가정이 별로 없지?”라는 동료 교사의 혼잣말이 양식을 바꾸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한 결정적 사건이었다고 하면서, “아이들의 인식개선은 물론이고 ... 영향력 있는 어른들의 인식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역설한다(3월, 정상가정?).

‘가정교과사 이야기’ 세 번째 주제는 ‘가정교과는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이다. 이 주제는 ‘가정교과교사는 가정교사인가, 기술교사인가, 기가교사인가’, ‘가정교과교사는 ‘가정교과’라는 편견에 갇혀 있다’, ‘가정교과는 비주류교과이다’의 하위 범주로 구성되었다(Figure 4 참조).

먼저 ‘가정교과교사는 가정교사인가, 기술교사인가, 기가교사인가’를 살펴보자. 가정교과사로서 신규교사는 학교 현장에 나가자마자 자신의 교과 정체성이 학교와 학생의 그것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실감한다. 이는 기간제 교사 경험이 없는 C교사에게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Figure 4>에서 알 수 있듯이 C교사는 “가정교과의 정체성은 늘 위협 속에 있다. 기술교과와의 병합·분리, 이에 다른 시수 경감, 비전공자가 가르치기도 하는 기이한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교과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 B교사에서도 들을 수 있다.

Figure 3. During Performance Assessment



본인이 생각하고 느낀 바를 정리하는 시간임을 강조하고 정답이 없으니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가정 교과의 이런 수업은 한참 변화가 많은 시기의 학생들에게 자신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고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의 생각이 담긴 활동지를 보며 제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A교사, 3월)

Figure 4.
Home Economics? Technology & Home Economics? Technology?



교실 뒤편의 시간표. ... 나는 가정만 가르치고 기술 선생님은 기술만 가르친다. 그런데 시간표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이 지당한 사실이 헛갈리시는 듯하다. ... 내가 속상해하는 이 사실을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C교사, 4월)

‘기술 선생님이라 확실히 잘하시네~. 네? 기술이요?
“저 가정 전공인데요? 그냥 제 능력인 거죠!”라고 발
끈했다. 푹푹푹 다 고치고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
겼다. ‘칭찬해 주신 건데 왜 이렇게 발끈했지?’, ‘그냥
웃으면서 이런 걸 좋아하세요~ 그리고 저는 가정과
예요~’라며 좋게 말하면 됐는데 왜 그랬지?, 여유 없
이 구는 게 너무 촌스럽네... 억울하면서도, 창피하면
서도, 당황스러웠다. (B교사, 3월, 기술·가정 선생님)

기간제 경험이 많은 A교사는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
다. 서면 인터뷰에서 A교사는 신규교사로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가의 질문에 발령받는 학교의 기술 교사 여부라고
한다. 기술 교사가 없다면 기술도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A교
사는 잘 알고 있었다. 잘 모르는 내용을 가르친다는 것은 전문
가로서의 정체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학생에게 미안한 일
이라는 생각을 넘어 교단에 서는 것 자체를 두렵게 만들었다.

두 번째 하위주제는 ‘가정과교사는 ‘가정교과’라는 편견에
간혀있다’이다. 신규교사는 학생과 동료교사로부터 가정과교
사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경험하였고, 이를 바로잡으려고 노
력하였다. 이 과정은 신규교사에게 교과 정체성을 더욱 분명
하게 세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으나 자괴감이나 분노를 유발하
는 사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한 신규교사의 대처는, 학생 변화를
통한 실천교과라는 가정교과 정체성을 가시화하는 것이었다.

(첫 수업 시간에) ‘가정’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3개씩
써보라고 했고 ... 가정과목은 ‘우리의 삶’ 그 자체인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결국

가정교과의 내용이라는 사실. 학생들이 가정과목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
실이 너무 속상했다. (C교사, 3월, 가정, 왜 배울까?)

C교사는 가정교과에 대한 학생의 편견에 당황하였으나 수
업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이러한 편견
을 수업 정체성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었다. 그러나 학생과
달리 동료교사의 편견은, 교과 전공자로서, 이들의 동료교사
로서 신규가정과교사에게 다층적 감정을 느끼도록 만들었다.
B교사는 기간제 교사 시절 신규교사가 동료교사에게 떡을 돌
리며 인사하는 것을 보고 좋은 문화라고 생각했고, 자신도
이를 본받아 동료교사와 떡을 나누며 인사했다. 그러나 떡을
받은 동료교사의 인사말은 “가정과 선생님답게 세심하고 센
스 있으시네요!”(3월, 식구)였다. 이렇게 연구참여자들은 동료
교사로부터 ‘가정과교사다움’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동료
교사에게 ‘가정과교사와 가정교과란 어떤 교과, 어떤 교사로
비칠까’의 의구심은 신규교사의 주된 경험 중 하나이다.

세 번째로 ‘가정교과는 비주류교과이다’의 하위주제를 살
펴보자. 신규가정과교사는 학교에서 비주류교과로서의 가정
교과의 위치를 부임하자마자 알게 된다고 말한다. 신규가정과
교사는 ‘가정교과의 현실’에 자괴감을 느끼지만(C교사, 3월,
불멸의 초심), “교과 교사의 고유권한인 수업권을 발휘해 중요
한 부분, 내가 더 잘 가르치고 실천하게끔 이끌 수 있는 부분”
을 수업에 많이 편성하는(B교사, 3월, 기술·가정 선생님) 방
식으로 대처하였다. 이처럼 신규가정과교사는 교과 정체성을
내세우며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했다. ‘비수능교과’이지
필요하지 않은 교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헤쳐 나가는 B교사에게서 확인해 보자. 건강한 친구관계 모듬활동을 한 학기 동안 진행되는 프로젝트형 수업에서 B교사는 동료교사의 양해를 구한 후 수업을 들어가는 전체 반의 앞문에 게시판을 만들어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도록 했다. 동료교사들이 게시판을 지지분하다고 생각할 것 같다는 B교사의 우려와 달리 이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며 융합 수업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소회를 B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규교사 연수 때 멘토 선생님은 ‘우리 교과는 나서서 보여줘야 하는 교과, 존재감을 인위적으로라도 드러내 줘야 한다’고 하셨다. ‘이렇게까지 슬프게 말 씌하셔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현장에 온 지 2개월 만에 극히 공감한다. (B교사, 4월, 게시판이 필요해)

신규과정교사는 학교 내 가정교과의 상황을 수용하는 가운데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것은 실천교과로서 가정교과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으로 모아졌다.

2. 연구참여자의 ‘신규교사 이야기’

연구참여자의 두 번째 이야기는 ‘신규교사 이야기’이다. 이 주제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교직은 멋진 직업이다’, ‘좋은 교사가 되겠다’로 구성되었다.

먼저 신규교사 이야기를 구성하는 첫 번째 주제인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를 살펴보자. 이 주제는 ‘임용시험과 기간제 교사생활을 끝냈다’와 ‘내 학생을 만난다’의 하위주제로 구성되었다(Figure 5 참조).

먼저 신규교사의 ‘임용시험과 기간제 교사생활을 끝냈다’를 살펴보자. 세 교사는 임용 전 이력이 다르고 임용시험 준비 기간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교사로서의 시작을 ‘기간제 교사생활 · 임용준비의 끝’과 연동하였다. 신규교사는 “자신과의 싸움”인 임용시험에서 해방되었음을 자축하였고(C교사, 서면 저널), 진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끽하였다. 신규교사가 되었다는 것은 “따뜻하자면 따뜻했고 서럽자면 한없이 서러웠던” ‘기간제’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을 의미한다(B교사, 서면 저널).

그 과정에서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보는 상황이 어떤 때는 불합리하게 느껴지면서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나의 잘못이라는 자책감도 들어 시험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A교사, 서면저널)

다음으로 신규교사들은 이제 드디어 ‘내 학생을 만난다’라고 말했다. C교사를 제외하고 A와 B교사 모두 기간제교사 경험이 있었음에도 세 교사 모두는 이 시기를 가정교과교사로서의 ‘처음’과 연결하였다.

임용 후 첫 담임이었고 첫 중학교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학생들은 모를 테지만, 저에게는 너희들이었기에 더 의미 있는 1년이었던 것을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A교사, 12월, 단체 사진)

Figure 5.
Greetings at Initial Deployment



사실 발령 이후 기쁨은 잠시였고, 곧이어 일주일 후 개학이라는 압박감과 두려움이 더 컸던 상황에서 이 배너를 보며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며 ... 심장이 마구마구 뛰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 기간제 교사를 오래 했음에도 ... 임용고시 합격 후 첫 학교라 이곳이 더 특별하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A교사, 3월)

신규교사의 두 번째 이야기는 ‘교직은 멋진 직업이다’로, 하위주제는 ‘학생이 교직의 중심이다’, ‘내 직업은 교사이다’, ‘힘을 주는 동료 교사’이다(Figure 6 참조).

먼저 ‘학생이 교직의 중심이다’를 살펴보자. 연구참여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학생에 대한 열의였다. 연구참여자의 교과 정체성과 교직관의 바탕에는 학생에 대한 강한 몰입감이 있었다. 또 신규교사를 향한 학생들의 애정은 교사의 자긍심을 높였고, 좋은 교사로 거듭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지게 했다. 학생과의 좋은 관계는 신규교사의 커다란 자원이다. 다음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선생님은 계속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점점 선생님이 편해졌어요. ... 선생님을 만난 게 정말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 ○○은 목석같이 자리에 앉아만 있었고 학급 친구들 누구와도 상호작용하지 않고 ... 아이의 살짝 웃는 그 미소를 매일 확인했다. ... 앞으로의 교직 생활 중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용기 내어 헤쳐 나갈 것이다. (C교사, 12월, 교직 생활 최고의, 잊지 못할 순간)

학생들의 독서 노트를 읽으며 B교사는 “책을 읽으며 쉴 틈 거렸을 (학생들의) 눈썹을 상상해 보면 너무너무 귀엽다”고 했고(4월, 글씨), A교사는 학생들과 단체 사진을 찍던 “이날의 파란 하늘, 아이들의 웃음소리, 제 마음속 몽글몽글했던 감정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했다(5월, 단체 사진). 신규교사는 학생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했고, 학생들이 보내는 긍정의 피드백은 교사로서의 높은 효능감과 만족감으

로 돌아왔다.

다음으로 신규가정교사는 ‘내 직업은 교사이다’라고 말한다. 신규교사의 업무는 월별로 매우 비슷했다. 이들은, ‘교직’은 매년 이러한 일정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신규교사로서 처음 맡는 방학의 소회와 예산집행의 어려움을 A교사와 C교사에게서 확인해 보자.

사실 연수가 아니라면 (여름방학에) 이런 시간을 스스로 가졌을까 싶을 만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수업 연구도 중요하지만, 진행했던 수업을 되돌아보는 시간의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A교사, 8월, 1정 연수 1주차 과제)

예산을 반드시 전액 집행하여 0원으로 맞추기 위한,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인가? 그렇겠지?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이다. ... 어렵다. (C교사, 12월, 예산 털어 쓰기)

한편 교사로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동료와 학부모에게 열려 있는 공개수업이다. 신규교사는 공개수업을 진행할 때도 가정교과의 정체성을 알리려고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B교사는 학부모 공개수업을 통해 학부모들이 과거 학창시절에 알던 “가사 수업”이 아닌 실천교과로서의 “가정 수업”이 무엇인지 알려려 했다. C교사 역시 “학부모 공개수업은 학교와 학부모를 ‘동반자’ 관계로 만들어 주는 수단”이라고 하면서, 공개수업은 교사와 학교에 관한 학부모의 관심과 신뢰를 높이는 좋은 기회라고 주장한다(C교사, 9월, 학부모 공개수업).

‘교직은 멋진 직업이다’라는 신규교사의 세 번째 하위주제는 ‘동료교사는 나의 힘이다’이다. ‘동료교사’는 연구참여자가

Figure 6.
Courage



나의 훌륭한 스승님들의 숭고한 가르침들 덕에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 몽클하기도 하고 벅찬 마음이 먼저 들었다. ... 내 교육관의 고향이기도 하다. ... 좋은 선생님 덕분에 잘 자랐다고, 선생님처럼 꼭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가 찾는 선생님께 잘 전해졌는지 너무나 궁금하다. (B교사, 5월)

들이 선정한 10월 주제이지만 포토보이스의 전반에 걸쳐 이야기될 정도로 신규교사 학교생활의 중심에 있었다. 신규교사는 동료교사를 통해 배움을 이어 나갔고, 자신을 통해 배우려는 동료교사를 기꺼이 도왔다. A교사에게 교육학습공동체인 ‘마인드 디자인’은 “지친(?) 마음을 재생”시키는, 그래서 “잠시나마 고된 업무를 잊고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한다. 또 교장·교감선생님들의 지지와 격려는 교직 만족도 및 효능감을 높였다. C교사는 교감선생님이 교직원 전체에게 보낸 메시지를 받은 후 “나도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 ... 학교의 좋은 분위기, 따뜻하고 수평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에는 관리자의 영향이 크다”고 했다(11월, 학교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은...). 또 신규교사는 연차 높은 동료교사가 꾸준히 배우며 성장하는 모습에 존경을 표했다.

공개수업이 끝난 후 복잡복잡한 교무실 모습은 정말 아름답다. 수업에서 사용하신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 다들 모이시기 때문이다. ... 학생들이 더 재미있게, 주인공이 되어 학습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뽕뽕 뽕친다. (B교사, 5월, 동료장학)

학교에서 맺은 동료관계는 종종 방과 후 혹은 방학 때까지 이어졌고, 이들과의 유대감은 신규교사의 학교생활을 더욱 즐겁게 만들었다. 신규교사에게 마음 맞는 동료교사는 교사생활의 커다란 힘이 되고 있었다.

신규교사의 세 번째 이야기는 ‘좋은 교사가 되겠다’이다. 이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나는 담임이다’, ‘올바른

경계선 만들기’의 하위 범주로 이루어졌다(Figure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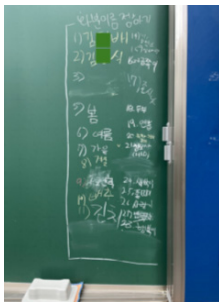
먼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를 살펴보자. 신규교사로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기간제 교사생활 및 임용시험 준비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만의 투철한 교직관을 확립하였다. 신규교사의 교사상은 차이가 있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학생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졌다. 또 신규교사들은 스스로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꾸준히 갖고자 했다.

... 이래서 선생님 하는구나. 앞으로 더 노력하고 싶다.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다. ... 나의 삶이 아이들에겐 풍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야겠다고, 새삼 다짐해 본다. (C교사, 4월, 누군가의 삶은 누군가에겐 풍경이 된다)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아이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거나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 나의 언행을 되짚어 보고 반성하고 다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학생을 마주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A교사, 5월, 나는 좋은 교사일까?)

‘좋은 교사가 되겠다’는 신규교사의 두 번째 하위주제는 ‘나는 담임이다’이다. 신규교사는 자신의 학급운영 철학을 학생들과 공유하는 일에서 담임 업무를 시작했다. 개학 첫날

Figure 7.
Butterfly Effect



우리 반 아이들이 올해 가장 행복한 중2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나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력이 강한 화분을 4개 사다 두었다. 자라나는 생명을 보며 희망을 얻고 ‘내 반려식물’이라는 애착을 교실 안에서 느낀다면 생명 존중도, 소속감도, 무기력감 해소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해서이다. ... 교장선생님께서 크게 칭찬하시고 스케일을 키워 ‘학교 숲 조성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물어봐 주셨다. ... 우리 아이들이 가정교과서의 내용을 피부로 느낄 기회를 만드는 것에 큰 매력을 느꼈다. ... 새로운 사업에 또 도전하고야 말았다. (B교사, 4월)

A교사는 학급 운영을 위해 서로 지켜야 할 규칙을 자료로 만들어 공유했고, B교사 역시 학급경영의 중점사항을 학생에게 안내하여 일방적 훈계가 아닌 깨달음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사가 되고자 했다.

‘규칙과 벌’이 중요한 게 아닌 ‘논리적 귀결과 성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연차가 높으신 선생님께서 “2학년 2반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 지도가 정말 확실해. 그 반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눈에 보여. 신규지만 정말 배울 게 많은 좋은 선생님이야”라고 말씀했다고 들었을 때 나는 정말 짜릿했다. (B교사, 5월, 벌이 아닌 성장하는 기회)

‘좋은 교사가 되겠다’는 신규교사가 힘들어했던 것 중 하나는, 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세 번째 하위 범주인 ‘올바른 경계선 만들기’이다. 신규교사는 학생, 동료교사,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경계선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신규교사는 학생과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경계선을 만들고자 했으나 자신이 만든 경계선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학생과의 경계선 설정의 어려움은 대개 학교 밖에서의 관계였다. C교사의 경우 ‘좋은 교사가 취할 행동 지침’을 기준으로 학생과의 경계선을 설정했지만, 이 고민을 교직 근무 내내 할 것 같다고 말한다.

(전학 가는) 아이가 내게 연락을 해온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고민이 된다. 아이를 학교교육 활동과 전혀 관련 없이 사적으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일까? … 그 ‘적정한 선’이 어디까지일지는 앞으로 더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어쩌면 교직생활 평생토록. (C교사, 5월, 좋은 교사란…)

신규교사는 동료교사와도 적절한 경계선을 만들어 갔다. B교사는 “학교에서 정말 많이 의지하고 친한 선생님들이지만, 나는 어디까지 오픈할 수 있을까? 과연 어느 선까지가 맞는 것일까?”라고 자문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동료교사와의 경계선을 찾고 있었다(B교사, 10월 “경계선”).

신규교사에게 학부모와의 관계는 어려운 일이었다. 학교는

학부모 공개수업이나 학부모 상담 기간을 만듦으로써 교사-학부모 관계를 맺도록 한다. 신규교사는 학부모와의 협조적 관계 속에서 학생을 지도하고자 했고, 이러한 시도의 성공은 신규교사에게 교사로서 자부심과 효능감을 느끼도록 했다.

어머니께 (자녀와의) 대화 방법에 대해서도 전화 상담을 통해 조언을 드렸습니다. … 어머니가 조바심 내지 않고 아이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아이 관심사에 맞는 대화 주제나 표현 방식에 대해서 … 교사를 믿고 학생을 맡겨주셔서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A교사, 9월, 학부모님의 답장)

신규교사는, 학부모와의 소통은 꼭 필요하며,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믿고 협력하며 지도할 때 학생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좋은 교사가 되겠다’는 신규교사 이야기의 네 번째 하위주제는 ‘난관을 넘어’이다. 이 이야기는 학기 말 학부모 민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B교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B교사에게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 학부모, 교사로서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는 학부모의 민원”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3월 딱 개학하자마자 아침부터 새벽까지 학부모님들의 전화로 … 내 전화기가 바빠졌다. 출결과 관련한 연락, 학생의 성적 상담, 학교생활 상담, (학생) 연애 상담, 불만 사항… 심지어는 가정환경 문제와 관련한 하소연이나 부부문제까지 나한테 늘어놓으신다. (B교사, 9월, 연락의 온도).

B교사는 “우리 반 아이들에게는 누구 하나 다르지 않게 항상 뜨겁게 사랑”하지만 학부모와 자신과의 관계에서 느끼지는 온도는 다르다고 말한다(9월). 크고 작은 학급 내 사건 처리에 학부모의 태도는 문제해결 및 교사-학생-학부모 관계에 중요한 변수이다. B교사 담임 학급에서, 교실에서 놀던 학생들이 서로의 교복을 두 동강으로 찢는 일이 일어났다.

두 학부모님이 잘 해결해 주셔서 겁먹어 잔뜩 놀아 있던 신규교사 한 명을 살려 주셨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나에게 부장님께서는 ... 작은 갈등이라도 교사가 나서서 모션을 취하면서 자기방어를 해야 한다고 하셨다 ... 정말 자기방어 하는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B교사, 9월, 자기방어)

A·C교사에게도 학부모와의 관계는 교사로서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었다. 학부모의 감사 인사와 “따뜻한 격려”, “믿어주시는 마음”(C교사, 9월, 평소 좋은 관계 다지기의 중요성)은 교사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B교사에게 교직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불러일으킨 사건은 학기 말에 발생하였다. B교사 학급의 학생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였고, 사건 수습 과정 중 새로운 사건이 계속 발생하였다. B교사는 사건을 수습하면서 학생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사건이 학부모 간 갈등으로 번지면서 상황은 건잡을 수 없게 되었다.

거의 3주 동안 하루에 3시간씩밖에 못 자면서 담임으로서, 교과 교사로서, 업무 담당자로서 나의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려 노력했다. ... 모두가 우리의 잘못은 없다고 하지만, 계속되는 학부모의 일방적인 민원에 일단 머리를 숙여야만 했다. 교사는 절대적인 ‘을인 현실이기 때문이다. 몸도 마음도 나의 명예도 다친 일들을 겪으면서 모든 열정이 식는 듯했다. ...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직업의 사명이 보람찼지만,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너무 아프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의 삶에 관여해야 한다는 것이 피곤하고 겁난다. (B교사, 11월, 하소연)

B교사는 이 사건으로 병을 얻었지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 것도 ‘학생’이라고 말한다.

아근하고 볼 꺼진 어두운 복도를 보면서 무섭고 서글픈 마음도 들었지만, 웬지 우리 반에 가보고 싶었다. 뻑뻑한 문을 열고 불을 켜니 밤에 보는 우리 반이 꽤 아늑하게 느껴졌다. ... 교사로서의 나를 성찰하게 되었다. ... 가끔 지치고 현실과 타협하여 사명감을 저버리고 싶을 때, 텅 빈 교실에 들려 남아 있는 아이

들의 체온을 느끼며 숨을 쉬고 마음을 정리하며 성찰하여야겠다. 이렇게 아이들은 나에게 마음의 약이다. (B교사, 11월, 약)

B교사에게 학생은 심리적 자원이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B교사에게 이직을 고민할 정도로 교직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불러일으켰으나 동시에 교직에 대한 강한 열망을 일깨운 것도 학생이었다. 이처럼 학생에 대한 강한 몰입감은 B교사의 회복력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가정교사로서 살아가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교사생활 첫 1년의 경험을 탐색하는 것으로, 포토보이스를 활용해 연구하였다. 연구참여자는 2022년 임용시험 합격 후 수도권 중학교에 근무하는 신규가정교사 3명이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22년 2월-2023년 1월이다. 수집한 자료는 81장의 포토보이스 사진과 사진별 현장노트, 서면 인터뷰, FGI이며, 주제 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포토보이스를 통해 나타난 신규가정교사로서의 경험은 6개의 소주제, 2개의 대주제로 요약되었다. 이제 신규가정교사 내러티브의 대주제인 ‘가정교사 이야기’와 ‘신규교사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들의 경험을 들어보자.

먼저 신규가정교사는 가정교사로서, ‘가정교과는 실천교과이다’, ‘가정교과는 변화를 만드는 교사이다’, ‘가정교과는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의 하위 주제로 자신들의 내러티브를 구성하였다. 신규가정교사에게 가정교과는 실천교과였다. 가정교과는 일상을 다루는 교과로, 가정교과를 통한 학생의 문제해결력 증진을 중시한다. 또 실천교과로서 가정교과의 내용 요소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고 여겼다. ‘실천’은 가정교과를 구성하는 핵심적 내용이다. 학생들은 ‘실천’이 있는 수업을 통해 자기 삶에 유용한 지식과 능력을 배울 수 있고, 교사·학생 간 대화 과정에서 공동의 의미를 공유하며 서로를 이해한다. 생

각을 자극하는 ‘실천’ 수업은 고정관념의 타파와 생각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Han, 2014). 실천이 일상에 닿아 학습자의 변화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가정교과를 구성하는 내용 요소가 개인, 사회, 학교, 지역사회 등의 요구와 필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한다. 가정과 교육이 해야 할 일은 학생이 주도적 삶을 살아가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 공동체를 위해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힘’을 기르도록 교육하는 것(Chae et al., 2019)임을 신규가정교과교사는 잘 알고 있었다.

신규가정교과교사는 가정교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었으나 학교현장에서 가정교과 갖는 위치에 회의감을 표현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근무 학교에서 비주류교과로 평가받는 가정교과의 위치를 경험하였으며, 동료교사로부터 가정교과사다움을 기대받았다. 또 신규가정교과교사는 수업을 통해 가정교과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학생, 동료교사, 교육과정 등에서 ‘기술교사’, ‘기가교사’로 불리는 가운데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참여자의 경험은 선행연구(Han & Chae, 2016; Yu, 2010)와 일치한다. 신규가정교과교사는 교직에 들어서면서 많은 업무량, 수업에서의 어려움 등을 통해 ‘현실 충격’을 경험하며(Yu, 2010), 가정교과를 ‘밥 짓고 빨래하는 법’을 가르치는 전 근대적인 교과,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기에 등한시해도 되는 교과라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 교사생활을 한다(Han & Chae, 2016).

신규가정교과교사는 부임 초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정체성 갈등과 혼란을 교과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는 계기로 삼았다. 신규가정교과교사는 실천교과인 가정교과의 정체성이 분명한 실천적 전문기이다. 실천적 전문가란 교육의 본질 즉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을 통해 자신과 학생의 체형구조 더 나아가 삶의 구성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Park & Bak, 2002). 향후 신규가정교과교사의 교직생활 적응을 위해 개별학교의 다양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이들을 실제로 돕는 실효성 높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신규가정교과교사의 두 번째 이야기는 ‘신규교사 이야기’이며, 이 주제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교직은 멋진 직업이다’, ‘좋은 교사가 되겠다’로 구성한다. 중등교사는 교과교사 역할 이외에도 담임 학습의 운영, 학생 진로 및 생활지도, 학부모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 등의 일을 수행한다. 또 신규교사는 교직 적응 과정에서 교과, 생활, 학습경영, 학교업무, 인

간관계의 영역에서 다양한 갈등과 시행착오를 경험한다(Park, 2010). ‘넋두리’라는 주제로 중등 체육교사의 삶을 탐색한 Cho(2023)에 따르면 중등교사의 넋두리는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 관리자, 행정실 직원 등 학교에서 늘 함께하는 사람들의 인간관계에서 시작되어 업무의 과중과 불공정성, 민원 업무로 이어진다.

신규가정교과교사의 교직 적응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신규교사 이야기’에는 새내기 교사의 열정이 생활 전반에 깔려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많은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학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에게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자 했다. 1년간의 포토보이스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학부모 민원 등의 고충이 있었으나 교직 만족도가 높았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기간제 교사생활·임용시험 준비가 끝났다는 데 있었다. 기간제 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임용시험 공부, 경제적 부담, 고용에 대한 불안, 사회제도로부터의 소외, 부모님이 느끼는 불안감 등을 경험하는 것이다(Koo & Choi, 2023). A·B교사는 기간제 교사생활의 어려움을 임용시험 합격을 위한 동력으로 삼았다. 기간제 교사생활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소외는 자존감 저하 및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졌고, 이는 안정되고 당당한 교사 신분을 얻기 위한 임용시험 준비로 이어진 것이다(Min & Jang, 2017).

연구참여자는 교직을 멋진 직업으로 인식하면서 좋은 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교직을 멋진 직업이라고 인식하는 것의 핵심에는 학생과 동료교사가 있었다.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학생들의 바람직한 변화는 교직에 대한 강한 자부심으로 이어졌다. ‘수업이 재밌다’는 학생들의 피드백, 앓을 실천하는 학생들의 변화, 감사함을 담은 학생들의 손 편지, 잘못을 인정하며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학생들은 연구참여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신규교사의 혼계나 가르침에 몇몇 학생은 저항하였으나 진정성을 갖고 학생 변화를 이끌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신규교사들은 학생 통제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동료교사로부터 ‘꼬시기’, ‘협상하기’, ‘회피’, ‘격리’ 등의 통제전략을 배우며 자신만의 통제전략을 만든다(Her, 2004). 또 신규교사는 학생과의 ‘적절한 경계’를 찾고자 하였다. 신규교사가 경력교사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학생을 포함해 동료교사, 학부모 등과의 건강한 경계선 설정은 이들의 필수 과업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교사로서 학생의 성장을 돕고, 학생·동료

교사·학부모로부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의 안내가 필요하다. 또 학부모·동료교사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교직 전문성에 대한 효능감을 높였다. 특히 신규교사는 술선수법의 자세로 교직을 수행하는 관리자의 모습과, 문제 발생 시 경험을 나누며 적절한 대처방안을 알려주거나 새로운 교수법을 계속 배우려는 동료교사의 모습에서 훗날의 자신을 그려나갔다. 신규교사가 교직에 첫발을 내디딜 때 동료교사와의 신뢰관계 및 교사 간 네트워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한 기술이 부재한 상황에서 불안감을 감소시키며 불확실성에도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Lee et al., 2022).

한편 신규교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생활지도로, 연구참여자들은 담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사소진을 경험하였다. 교사소진은 교사열의와 교직원과 함께 교직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Joo & Jung, 2020). 교직은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직군이며, 최근 우리나라 교사들은 자존감 상실과 회의감으로 휴직이나 명예퇴직 등 교직 이탈 가능성이 높다(Korean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s, 2021). B교사는 학생 간 갈등이 학부모 간 법적 분쟁으로 번지면서 몸과 마음을 다쳤다. 교사소진을 감소·완화하기 위해서는 교사 정체성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적 공유 및 성찰 활동의 촉진, 교사효능감 등 개인적 및 사회적 영향 요인을 강화하는 상담 및 연수 활동 제공이 효과적이다(Kim & Lee, 2021). 다시 말해 교사소진을 예방·보호하는 요인은 직무몰입, 회복탄력성, 심리적 대처, 긍정심리자본, 사회적지지 같은 긍정적 심리변수이므로(Suh, 2017) 이러한 측면에서 신규교사 스스로 자신을 돌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포토보이스를 통해 신규가정교사 첫 일 년의 교직생활 경험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중등학교 신규가정교사의 교사생활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신규 발령을 받은 가정교사의 첫 1년을 그들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탐색함으로써 교직에 적응하는 신규교사의 삶에 대한 이해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1년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교과지도나 생활지도, 학부모와의 관계, 학교 관리자와의 관계 등 세부적인 내용의 깊음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범위를 좁혀 특정 주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 기술·가정교과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 교육과정 운영에 차이가 크에도 불구하고 이 연

구는 중학교 신규가정교사만을 살펴보았으므로 향후 고등학교로의 연구 범위 확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신규가정교사의 경험을 포토보이스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포토보이스를 참여적 행동 연구라고 하는데, 이는 이 방법론이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체 중심의 이해 및 행동을 지향하기 때문이다(Oh, 2023). 포토보이스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는 포토보이스 연구의 계획, 실행, 그리고 이후 연구결과와 활용까지 능동적으로 참여한다(Her & Chung, 2019). 연구참여자들은 신규가정교사의 경험에 관한 이 연구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교사되기’를 성찰하였다. 또 포토보이스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추고, 공유되는 그들의 생각과 경험을 연구결과로 도출해 연구참여자와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포토보이스의 이러한 특성은 실천과 지역사회기반을 강조하는 가정교과와 매우 닮았다. 지역사회기반 참여연구인 포토보이스는 가정교과 관련 연구와 교육 현장에서 연구참여자와 학생, 이들의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실천을 이끌 수 있다. 향후 연구전략 및 교육전략으로서의 포토보이스 확대를 기대한다.

Declaration of Conflicting Interests

The author declares no conflict of interest with respect to the authorship or publication of this article.

참고문헌

- Ahn, J. H., & Park, M. J. (2020). A narrative inquiry of the identities of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2(2), 159-178. <http://doi.org/10.19031/jkheea.2020.06.32.2.159>
- Banner Jr. M. J., & Cannon H. C. (2022). *The element of teaching [훌륭한 교사는 이렇게 가르친다]* (2nd ed.). (S. S.

- Yoo, Trans.). Seoul: Dabom Publishing. (Original work published 2017).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Chae, J. H., Park, M. J., Kim, S.-G., Han, J., Yu, N. S., & Heo, Y. S. (2019). *가정과수업방법과 수업실연 [Home economics teaching methods and classroom practice]*. Paju: Gyomoonasa.
- Cho, C.-K., & Kim, B.-Y. (2020). Exploring the potentials and implications of photovoice as a pedagogical tool for geography.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26*(3), 272-287. <https://doi.org/10.26863/JKARG.2020.8.26.3.272>
- Cho, H.-S. (2018). Heartache in the professional life of secondary physical education teachers.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27*(2), 767-787. <http://doi.org/10.35159/kjss.2018.04.27.2.767>
- Cho, H.-S. (2023). Secondary physical education teachers' grumbles in their professional life.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32*(2), 551-573. <https://doi.org/10.35159/kjss.2023.04.32.2.551>
- Cho, Y. (2022). Awarenes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teaching life by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hrough photovoic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3*(6), 1217-1230. <http://doi.org/10.22143/HSS21.13.6.83>
- Choi, J. (2023). Exploring the meaning of living as an elementary school teacher: Using photovoice.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36*(2), 273-313. <http://dx.doi.org/10.29096/JEE.36.2.11>
- Choi, J.-W. (2016).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in photovoice with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18*(1), 161-183.
- Chung, J.-Y., Kim, K.-S., Kang, T.-H., Ryoo, J. S.-C., Yun, H.-J., & Sun, M.-S. (2014). A needs assessment analysis of new teacher's job competence in secondary school.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31*(4), 373-396. <http://doi.org/10.24211/tjkte.2014.31.4.373>
- Han, J. (2014). *Experiences of the teachers and students in the practical problem based Home Economics cla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 Buk, Korea.
- Han, J., & Chae, J.-H. (2016). Experiences of the teachers in the practical problem-based Home Economics class. *Human Ecology Research, 54*(4), 351-364. <https://doi.org/10.6115/fer.2016.027>
- Her, J. S. (2004). *An ethnographic study on the beginni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of educational activ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uungsung University, Busan, Korea.
- Her, W., & Chung, H. E. (2019). A review of the literature using photovoice in social work research.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9*(4), 320-355. <http://doi.org/10.15709/hswr.2019.39.4.320>
- Hong, S. A., Joung, S. H., Lee, J. W., & Kim, Y. (2023). An exploration of the conceptual awareness of sustainable diet utilizing photovoice f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Home Economics Education Research, 35*(4), 135-149. <https://doi.org/10.19031/jkheea.2023.12.35.4.1352023>
- Jin, Y. H., & Oh, Y. B. (2022). Exploring the emotions experienc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during the COVID-19 era.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2*(16), 581-599. <http://doi.org/10.22251/jlcci.2022.22.16.581>
- Joo, Y. H., & Jung, J. Y. (2020).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factors affecting teaching profession satisfaction of secondary school teachers.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6*(2), 309-333. <http://dx.doi.org/10.29318/KER.26.2.13>
- Jun, M. (2022). Narrative inquiry of living as a male student in the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2*(6), 201-223.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6.201>
- Jung, H. S., & Yang, J. H. (2016). A qualitative research on new elementary school teacher's school work performance.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33*(4), 297-328.
- Jung, S., No, U., & Woo, Y.-K. (2023). Exploring the patterns of professional adaptation and influential factors of novice secondary teachers.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36*(2), 315-341. <http://doi.org/10.31158/JEEV.2023.36.2.315>
- Kang, O., & Kim, K. (2019). Analysis of public perception on the roles of secondary school teachers in webtoon.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 Instruction*, 19(4), 1049-1070.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4.1049>
- Kim, J. S. (2024). *A study on the adolescent sibling relationship through photovo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 Heo, Y. (2019a). A literature review toward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photovoice methodology in special educatio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for Curriculum and Instruction*, 12(3), 85-107. <http://doi.org/10.24005/se ci.2019.12.3.85>
- Kim, J., & Heo, Y. (2019b). Exploratory study on the everyday life and growth experiences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Using photovoice methodology. *The Education Journal for Physical and Multiple Disabilities*, 62(3), 127-150. <http://doi.org/10.20971/kcpmd.2019.62.3.127>
- Kim, K. T., & Lee, S. Y. (2021). Diagnosis of the level of teacher identity and the mediating effect of teacher 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identity and teacher burnout. *Teacher Education Research*, 60(4), 699-713. <http://doi.org/10.15812/ter.60.4.202112.699>
- Kim, K.-O. (2020). Exploring socio-ecological barriers perceived by physical education teachers: Photovoice inquir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Sport*, 33(3), 43-59. <http://doi.org/10.22173/ksss.2020.33.3.3>
- Kim, S.-H., & Chae, J.-H. (2018).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plan of home economics teacher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0(2), 77-102. <http://doi.org/10.19031/jkheea.2018.06.30.2.77>
- Kim, Y. C., Jung, J. H., & Lee, Y. M. (2006). *미운 오리 새끼: 한국 초임 교사의 일 년 생활 [The ugly duckling: A year in the life of a first-year Korean teacher]*. Yongin: Moonumsa.
- Ko, S. (2023). Career guidance counseling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using photovoice.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8(2), 133-156. <http://dx.doi.org/10.20437/KOAECE28-2-06>
- Koo, M., & Choi, J. (2023). A narrative exploration of the life of a secondary school fixed-term teacher.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3(10), 1-20. <http://doi.org/10.22251/jlcci.2023.23.10.1>
- Korean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s (2021, May 13). *2020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지침서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educational authority and educational counseling activities in 2020]*. Seoul: Author.
- Latz, A. O. (2018). *포토보이스 연구방법 [Photovoice research in education and beyond]*. (D. Kim, Trans.). Seoul: Hakjisa. (Original work published 2017).
- Lee, G. U. (2019). A study on the narrative of addiction using photovoice: Focusing on alcoholism. *Journal of bibliotherapy*, 11(1), 19-40. <http://doi.org/10.35398/job.2019.11.1.19>
- Lee, H.-J. (2014). Analysis study for understanding the pre-service teachers' view about middle school teacher's rol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4), 500-512. <http://dx.doi.org/10.5392/JKCA.2014.14.04.500>
- Lee, S.-C., Lee, D., & Kim, H. (2022). Analysis on types of novice teachers' induction and impacts of policy support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2(16), 293-305. <http://doi.org/10.22251/jlcci.2022.22.16.293>
- Min, E., & Jang, Y. (2017). A qualitative study on the lives of non-tenured, secondary school teachers who are preparing for teachers' exam.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2), 359-371. <http://doi.org/10.5762/KAIS.2017.18.12.359>
- Nam, J. W. (2023, May 14). Satisfaction among educators plummets to the 20s: How did teachers end up becoming 'extreme jobs'? *Kyungkyang Shinmun*. https://www.khan.co.kr/print.html?art_id=202305141623001
- Oh, Y. B. (2023). Trend analysis of photovoice research on pedagogy area in Korea.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3(9), 731-748. <http://doi.org/10.22251/jlcci.2023.23.9.731>
- Oh, Y.-J. (2001). Secondary school teacher's life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in their diarie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9(4), 207-230
- Overmars-Marx, T., Thomése, F., & Moonen, X. (2017). Photovoice in research involving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 guide photovoice approach as an alternative.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31(1), 92-104.
- Park, G. H., & Bak, B. H. (2002). A study on reconsideration of teacher education and investigation for alternative plan.

-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19(1), 245-271.
- Park, J.-S. (2010). *A narrative inquiry into new teachers' experience of adaptation to teaching profession in an elementary schoo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g Buk, Korea.
- Shin, W.-D. (2022). An exploratory study on the use of photovoice in moral education. *Korea Ethics Education Association*, 66, 1-25. <http://doi.org/10.18850/JEES.2022.66.01>
- Suh, M.-O. (2017). The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among burnout, personal factors, job factors and social factor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teacher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1(4), 615-637. <http://doi.org/10.17286/KJEP.2017.31.4.02>
- Tschong, Y. (2003). Rolle und aufgabe des mittelschullehrers im pädagogischen sinne.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8(1), 89-109.
- Wang, C. C., & Burris M. (1994). Empowerment through photovoice: Portraits of participation. *Health Education Quarterly*, 21(2), 171-186.
- Yang, H. J. (2016). Approaches to the meaning of and prevention programs for school violence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youth: Using photovoice methodology. *The Korean Journal of Psychodrama*, 19(2), 57-71. <http://doi.org/10.17962/kjp.2016.19.2.004>
- Yoo, S. (2015). Photovoice as a research method and a strategy for community health promotion.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Promotion*, 32(1), 77-87. <http://doi.org/10.14367/kjhep.2015.32.1.77>
- Yoon, J. (2016). What it could mean to be a great teacher: An inquiry through the life history of a secondary school art teacher. *Anthropology of Education*, 19(3), 185-225. <http://doi.org/10.17318/jae.2016.19.3.006>
- Yu, N. (2010). A study on novice home economics teacher socialization. *Human Ecology Research*, 48(3), 99-114.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신규가정과교사로서의 교사생활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다. 연구내용은, 신규가정과교사는 첫 1년 동안의 교사생활에서 무엇을 경험하며 이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연구방법론은 포토보이스를 활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2022년 가정과교사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 3월부터 수도권 중학교에 근무하는 신규가정과교사 3명이며, 2022년 2월~2023년 1월에 걸쳐 서면 인터뷰(2월, 1회), 포토보이스(3월~12월, 9회, 총 81장의 사진과 사진별 현장 노트), FGI(여름방학과 겨울방학)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주제 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신규가정과교사의 내러티브는 크게 가정과교사 이야기와 신규교사 이야기로 구분되었다. 신규가정과교사는 가정과교사로서, ‘가정교과는 실천교과이다’, ‘가정과교사는 변화를 만드는 교사이다’, ‘가정교과는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의 하위주제로 자신들의 내러티브를 구성하였다. 또 신규교사 이야기의 하위주제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교직은 멋진 직업이다’, ‘좋은 교사가 되겠다’이다. 이 연구는 신규가정과교사의 첫 1년을 그들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탐색함으로써 신규교사의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고, 연구전략이자 교육전략인 포토보이스의 가능성을 넓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논문접수일자: 2024년 2월 1일, 논문심사일자: 2024년 2월 26일, 게재확정일자: 2024년 3월 6일